

해수부, 그리스와 손잡고 6천 년 해양문명 국내 최초 대규모 소개

- 한·그리스 수교 65주년 기념 국제교류전 <그리스, 바다가 빛은 위대한 문명>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와 국립인천해양박물관(관장 우동식)은 한·그리스 수교 65주년을 기념하여, 그리스 문화부와 공동으로 국립인천해양박물관에서 국제교류전시 <그리스, 바다가 빛은 위대한 문명>을 8월 11(화)부터 12월 6일(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그리스 국·공립박물관 15개소가 참여해 유물 348점을 선보이는 국내 최대 규모의 그리스 특별전이다. 신석기 시대부터 알렉산드로스 대왕 시대까지 약 6천 년에 걸친 고대 그리스 문명을 ‘바다가 빛은 문명’이라는 관점에서 조명할 예정이며, 8월 10일(월)에 개최되는 개막식에는 그리스 문화부 차관이 참석한다.

전시는 총 5부로 구성되며, 1부 <에게해, ‘이동성’과 그리스 세계의 탄생>은 키클라데스·미노아·미케네 문명의 대표 유물을 통해 에게해 해상 교류가 그리스 문명의 탄생을 이끈 과정을 살펴본다. 2부 <바다를 건넌 신화>와 4부 <올림피아와 범그리스 성소>는 그리스 신화와 올림픽이 지닌 해양적 세계관을, 5부 <바다와 대륙을 넘어>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원정과 헬레니즘 세계의 해상 교역망을 조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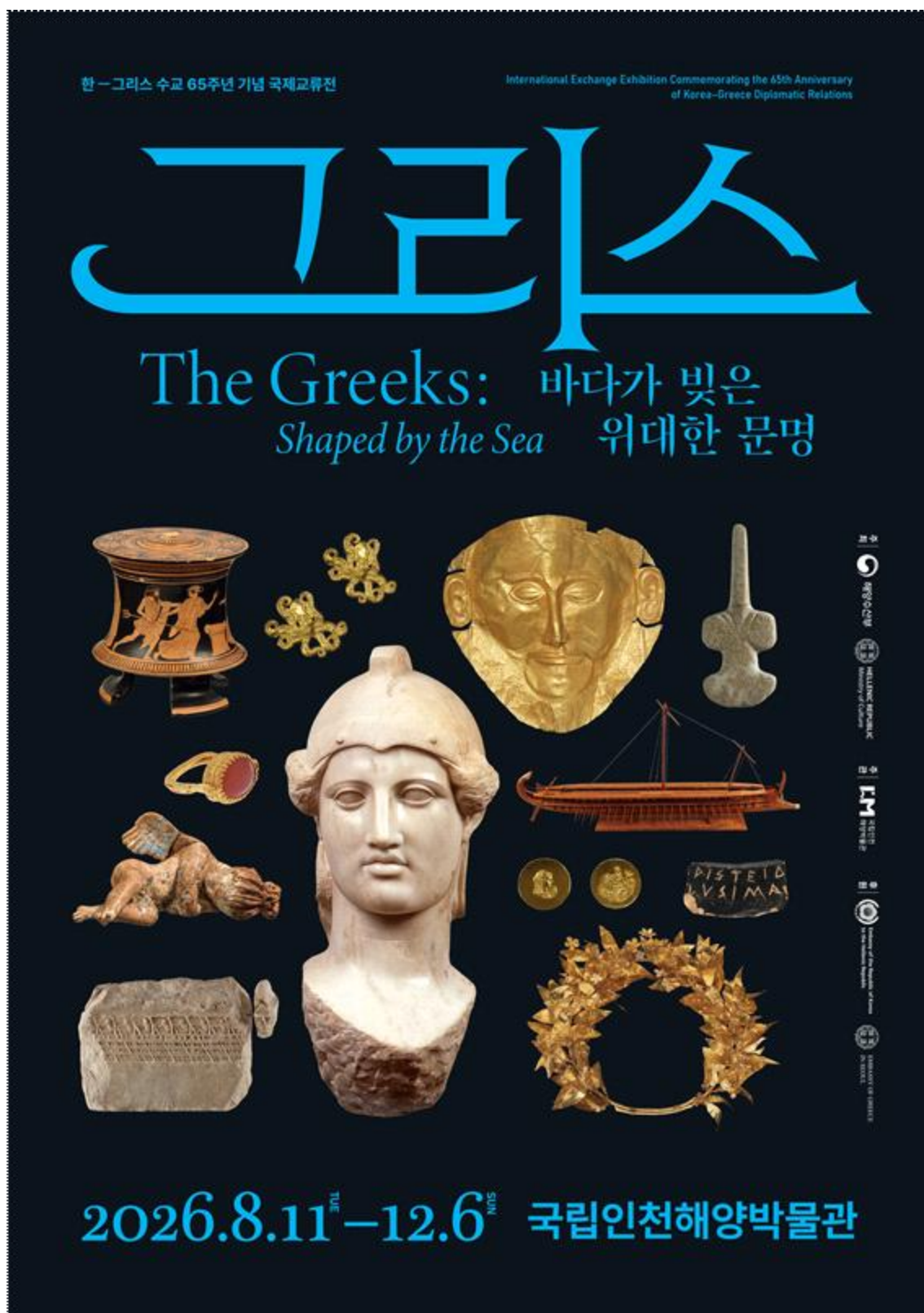
특히, 3부 <전쟁과 민주주의>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 해군력과 해전을 집중 조명할 예정이며, 삼단노선(Trireme) 선수(船首)에 장착돼 적선을 들이받는 데 쓰인 청동 충각(Ram) 2점과, 국가 의전용 삼단노선으로 추정되는 배가 새겨진 ‘렌노르망(Lenormand) 봉헌비’가 국내 최초로 공개된다.

이 밖에도 아프로디테 여신에게 봉헌된 불멸의 상징 ‘황금 은매화(Myrtus) 화관’과 헬레니즘 시대 해상교역망과 문화교류를 보여주는 ‘안티키테라 난파선 출수 유물’ 등이 전시된다.

이번 전시는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지난 5월 사전 공개된 <오디세이, 그리스 신화 오디세우스의 대모험>과 한·그리스 조선산업 협력사를 소개하는 팝업 전시 <더 퍼스트 웨이브>도 함께 관람할 수 있다.

남재헌 해양수산부 차관은 “그리스는 에게해를 무대로 민주주의와 올림픽, 헬레니즘 문명을 세계에 전파한 대표적인 해양국가”라며, “이번 전시가 양국이 바다를 매개로 쌓아온 우호를 되새기고, 해양문화유산 분야의 협력을 넓혀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해양정책관 해양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병구 (051-773-5220)
		담당자	사무관	변성빈 (051-773-5229)
담당 부서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전시기획부	책임자	부 장	고미경 (032-453-8860)
		담당자	학예사	전누리 (032-453-8861)



참고 2

<그리스, 바다가 빛은 위대한 문명> 주요 유물

구분	자료명	사 진	소장처
프롤로그	쿠로스(Kouros) / 코레(Kore) - 기원전 7~6세기 아르카익 시대를 대표하는 기념비적 조각상으로, 고대 그리스 조각예술의 출발점이자 이상적 인간상을 구현한 작품 - 신에게 바치는 봉헌물이나 기념물로 제작되어 신전과 성역에 세워졌으며, 이후 고전기 조각으로 이어지는 인체 표현의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유물		국립고고학박물관 아크로폴리스박물관
<1부> 태동	아크로티리 청년 벽화 - 테라(산토리니) 아크로티리 서쪽 저택 제5실에서 발견된 프레스코 벽화의 일부로, 청동기 시대 에게해 미술을 대표하는 걸작 - 화산재 속에 원형에 가깝게 보존되어 에게해인의 생활과 해양문화, 세계관을 생생하게 전하는 대표 유물		아테네유물관리국
	아가멤논의 황금가면(복제) 미케네 원형무덤군 A에서 출토된 다섯 점의 황금 가면 가운데 얼굴 표현이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미케네 지배층의 권위와 장례문화를 보여주는 대표 유물		미케네 국립고고학박물관 (복제품)
<2부> 신화	아테나 두상(Head of Athena) - 고대 그리스의 대표적인 도시국가 '아테네'의 수호신인 지혜와 전쟁의 여신, 아테나를 묘사한 두상 - 정교한 조각기법과 뛰어난 완성도로 신성한 위엄과 이상적 아름다움을 구현했으며, 고대 그리스 조각 예술과 기술을 보여주는 유물		국립고고학박물관
	바다를 의인화한 형상이 표현된 모자이크 - 기원후 3~4세기경 제작된 모자이크 바닥으로, 작은 색색의 타일을 정교하게 이어 붙여 바다의 의인상을 표현한 작품 - 바다를 기반으로 번영한 항구도시 테살로니키에서 출토된 작품으로, 당대 모자이크 기법의 뛰어난 수준과 바다가 고대 그리스인의 삶과 신앙, 예술의 중심이었음을 보여주는 유물		테살로니키 고고학박물관
<3부> 전쟁과 민주주의	충각 - 국내 최초로 공개되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 해군의 핵심 무기인 충각(Ram)으로 기원전 4세기 경에 제작 - 충각은 살라미스 해전을 비롯한 주요 해전에서 그리스의 승리를 이끈 해상전투 기술의 상징으로 빠른 속도와 뛰어난 기동력을 갖춘 삼단노선(트라이림)의 뱃머리에 장착되어 적선의 선체를 들이받아 침몰시키는 데 사용		피레우스고고학 박물관

구분	자료명	사 진	소장처
	삼단노선이 묘사된 봉헌비 (렌노르망 봉헌비) 기원전 5세기 경에 제작된 삼단노선(트라이림)과 노잡이가 묘사된 봉헌비로, 봉헌비에 묘사된 배는 도시국가 아테네가 긴급하거나 신성한 공무를 수행할 때 투입했던 것으로 유명한 삼단노선인 '파랄로스호'일 가능성이 높아, 가치가 매우 높음		아크로폴리스박물관
<4부> 올림픽	원반을 던지는 선수가 묘사된 원반 기원전 5세기 초에 제작된 역동적으로 원반을 던지는 선수의 모습이 묘사된 대리석 원반으로, 운동 기구 표면에 해당 운동을 하는 선수의 모습을 재치있게 표현한 유물		키클라데스 유물관리국
<5부> 헬레니즘	알렉산드로스-판 조각상 편안한 자세로 서 있는 알렉산드로스의 강인한 몸을 표현한 조각상으로, 제국을 건설한 알렉산드로스를 대자연의 신 '판'의 모습으로 표현		테살로니키고고학 박물관
	황금 도금양 화관 기원전 350-325년에 제작된 아프로디테 여신에게 봉헌된 불멸의 상징인 향기로운 은매화에서 영감을 얻은 장식이 깃든 화려한 화관		테살로니키고고학 박물관
	안티키테라 난파선 출수 유물 - 기원전 2세기 후반~1세기 초, 크레타섬과 펠로폰네소스반도 사이의 안티키테라섬 인근에서 침몰한 상선에서 출수된 금귀걸이 한 쌍 - 헬레니즘 시대의 광범위한 해상 교역과 문화 교류를 보여주는 유물로, 정교한 금세공과 다양한 보석을 조합한 화려한 장식은 당시 장신구 제작 기술의 높은 수준을 보여줌		국립고고학 박물관